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 <뱀파이어 검사>와 <귀신 보는 형사 처용>을 중심으로 -

백소연*

<차례>

1. 머리말
2. 순환되는 ‘폭력의 역사’와 악마/원혼의 탄생
 - 2.1 부당한 정치권력의 진형과 답습
 - 2.2 사법기관의 무능과 부패
3. 공권력의 불완전한 복원과 진실의 은폐
 - 3.1 초능력을 통한 질서의 일시적 회복
 - 3.2 ‘피담’의 소멸과 은폐된 악의 기원
4. 맺음말

<국문초록>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수사드라마들은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집요한 과정 속에서 이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목도함으로써 정의를 향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게 만든다. 특히 환상의 개입이 두드러진 OCN의 <뱀파이어 검사>와 <처용>의 경우, 공권력의 합리적 운용을 불신함으로써 현실을 모방하고 환상을 경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복원하고자 열망한다. 그러나 수사물이라는 장르의 성격상 이들은 강력 사건의 특정 가해자를 색출하고 제거하여 공동체의 일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 결과 미궁에 빠졌던 강력 사건은 공권력의 대리자들의 초능력으로 어렵사리 해결되지만, 결정적 진실은 적절히 정리되거나 은폐되는 수순을 밟아간다. 물론 특정 사건의 해결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약자 개인의 원한을 해소한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 안에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목소리는 집단의 경험으로 복원되지 못하며 애도와 반성,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수호하려는 주인공인 검사와 형사는 문제의 심연으로 들어갈 길을 교묘히 차단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초월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해결사, 공권력의 유능한 대리자 역할에 스스로를 한정해 버리는 한계를 지닌다.

주제어 : <귀신 보는 형사 처용>, <뱀파이어 검사>, 수사드라마, OCN,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드라마, 환상

1. 머리말

환상¹⁾은 “기존의 질서나 인식 체계를 넘어서 세계를 재정의하고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인식론적 형태, 혹은 그 구성물”이다. 즉 리얼리티의 재현 형식으로 현실 세계를 모방하고 재생산하는 것과 달리 리얼리티의 재현을 넘어 새롭게 기호 의미를 완성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상력의 한 표현 영역인 것이다. 그리하여 환상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익숙한 경험 세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그 대안 세계로서 낯설고 경이로운 세계를 제안해 왔다.²⁾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다양한 설정들이 시도되면서 2010년대 ‘환상’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성적 추론에 기반을 둔 서사가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할 수사드라마 속에서도 일상의 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운 환상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후반 수사 장르의 제작이 활발해진 한국의 상황이 결국 <CSI>로 대표되는 ‘미드’에 대한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³⁾ ‘과학’으로 압축되는 합리성과 이성이 미드의 수사 과정에서 절대적 기준이었다는 점을 환기한다면 이는 분명 흥미로운 변주였다.⁴⁾

- 1) 환상에 관한 정의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에 의해 그 개념이 규정되어 왔으며 현실적 법칙과는 무관하게 창조된 가상 세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13면)
- 2) 최기숙, 앞의 책, 32면.
- 3) 정여울은 한국의 20대 중 45% 이상이 ‘미드페인’ 미드에 극단적으로 심취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몰입하는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범죄과학수사와 관련된 서사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여울, 『<CSI>엔 없지만 <별순검>엔 있는 것』, 『플랫폼』8호, 2008, 36~39면)
- 4) OCN 드라마는 한국 수사드라마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로 출발한 OCN은 2005년 처음으로 드라마 <동상이몽>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성과 사랑을 소재로 한 성인 대상의 드라마들을 방영하였다. 그러던 중 OCN은 2010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로즈마리 잭슨에 따르면 '환상'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면에 감춰진 틈새의 공간"과도 같다. 이러한 틈새의 공간은 "현실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존재들이 현실 질서를 위반하면서 출몰하는 곳"이며 이 "틈새 공간에 거주하는 억압된 존재란 다름 아닌 숨겨진 욕망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 흠의 주장처럼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이라는 환상의 욕망이 모방의 욕망과 함께 예술 창작의 주요한 원인이라면⁶⁾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일련의 판타지 수사드라마들⁷⁾은 공권력의 합리적 운용을 불신함으로써 부당한 현실을 모방하며 환상을 경유함으로써 도리어 그 질서를 위반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욕망한다.⁸⁾ 이를테면 드라마 속 원혼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존재인데 이들은 환상(사이코메트리/귀신)을 보는

년대를 전후하여 드라마 제작의 방향성을 수사물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의 퀴즈>, <뱀파이어 검사>, <특수수전 전담반 TEN>, <처용>, <실종 스텔러 M>, <나쁜 녀석들> 등은 이미 시준제로 제작되거나 그 제작이 논의되고 있는 작품들로 화제성과 작품성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 5) 로즈마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241면.
- 6) 케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7) "수사드라마는 추리물, 추리드라마, 범죄 수사물, 경찰 수사물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용어 중에서 수사드라마와 추리물-추리드라마와의 혼용은 문제적이다. 한국의 수사드라마는 외국의 추리물에 존재하는 사립탐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수사행위는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묘사된다. 즉 한국의 수사드라마는 추리서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추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의 과정을 거쳐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추리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 되는 추리물과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질서의 회복으로 봉합되는 한국의 보편적 수사드라마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252면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뱀파이어 검사>와 <처용>은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현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한국형 수사드라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8) 환상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2014년에 방영된 OCN의 <나쁜 녀석들>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모아 더 나쁜 악을 소탕하려는 강력계 형사와 나쁜 녀석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라는 소개가 그대로 보여주듯, 범죄자의 힘을 빌려 범인 검거에 나선다는 설정, 그리고 그 범인이 현직 검사라는 점은 무력한 공권력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능력 등을 경유하고서야 그 존재가 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환상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부조리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시스템 안에서 진실과 정의란 유명과 괴물의 형체/목소리를 빌리지 않는 한 공공연히 발화되거나 합리적으로 포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때의 환상은 공권력의 숨겨진 한계와 제도 전반의 허점을 폭로하면서 정의와 불의의 이율배반적 관계를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자 이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미봉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 양식인 것이다.

본고는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이른바 '장르물'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연 OCN 수사드라마 가운데 환상의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에 주목하였다. OCN 수사드라마들은 그간 공중파에서 선보이지 못한 과감한 주제의식과 독특한 표현 양식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 특히 <뱀파이어 검사>⁹⁾와 <귀신 보는 형사 처용>¹⁰⁾은 범인을 색출하여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 "환상"이 중요한 동인이 된 작품들이었다. 이들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여 시준제로 제작된 것은 물론, 시의성 있는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수사드라마로서의 전형적 서사 구조와 추리적 성격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뱀파이어, 퇴마사 등의 설정을 설득력 있게 활용하여 작품성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비현실적인 듯한 환상 역시 현실의 핵심에 대한 심리적 현실의 강한 표현"¹¹⁾이라는 말처럼 이들

9) 양진아·한정훈·박형진 극본, 김병수 연출, <뱀파이어 검사>, OCN, 총16회, 2011.10.02~2011.12.18.

한정훈·이승훈·강은선 극본, 유선동 연출, <뱀파이어 검사 2>, 총11회, 2012.09.09~2012.11.18.

10) 홍승현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 보는 형사 처용>, OCN, 총 10회, 2014.02.09~2014.04.06.

홍승현·문기람·김용철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 보는 형사 처용 2>, OCN, 총10회, 2015.08.23~2015.10.18.

11)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19면.

드라마 속 환상의 역할과 그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현 사법 질서와 현실 세계의 정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읽어내는 유효한 방법이 되리라 본다.

2. 순환되는 '폭력의 역사'와 악마/원혼의 탄생

2.1 부당한 정치권력의 전횡과 답습

<뱀파이어 검사> 시즌 1의 핵심은 주인공인 민태연과 그의 여동생을 뱀파이어로 만들었던 '검은 우비'(장철오)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시즌 2는 이어지는 방혈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L의 악행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전 시즌을 통괄하는 문제의 기원에는 1970년대 군부가 주도한 '릴리트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붙잡힌 한 소년은 갖가지 생체 실험에 동원되면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실험체 'L'로서 존재하기만을 강요받았던 그는 연설 도중 피습당한 장군이 후송되어 뱀파이어의 피를 수혈하여 부활시키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란을 계기로 가까스로 비밀 병커를 탈출하게 된다. 그 후 제2 병커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은밀히 수사하던 검사 박훈은 사라진 L의 흔적을 따라가던 중 불의의 습격으로 뱀파이어가 된다. 박훈을 시작으로 수혈 및 직접적인 공격 등으로 장철오 검사, 민태연 검사, 연지(민태연 검사의 보육원 여동생)가 차례로 뱀파이어가 되면서 드라마의 핵심 사건들이 시작될 것이다.

시즌 2의 첫 화인 "폭력의 역사"는 뱀파이어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불법 실험의 실상을 일부 폭로하며 시즌 1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했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 이러한 과거가 1회에서 벌어지는 현재 시점의 살인 사건과 병치되는 점 또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제목 그대로 폭력이 자행되어 온 역사, 해결되지 못한 채 되풀이

되는 '폭력'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조망하기 때문이다.¹²⁾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남자가 연이어 납치되어 잔혹하게 고문,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는 1980년대 날조된 형제 간첩단 사건이 존재한다. 당시 공안1과에서는 검사인 유영길의 지시를 받은 허학범이 아무라도 잡아다 주면 공안분실 실장인 공두훈이 고문하여 간첩으로 만들어 전과를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987년 고문 받던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고 결국 공두훈의 구속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비로소 와해된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유영길, 허학범, 공두훈의 자식들이 각각 납치되어 참혹하게 고문, 살해되고 이 모든 과정이 배달된 CD를 통해 그들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범인은 바로 과거 날조되었던 사건 중 하나인 형제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아들 김찬이었던 것이다.

이는 시즌 2의 무자비한 연쇄살인마 'L'이 군부의 실험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강제 납치되어 감금된 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 군부의 비밀 병커를 어렵사리 탈출하였지만 풍비박산 된 자신의 집에서 가족의 생사조차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함께 연결 짓게 만든다. 결국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은 채 피에 굶주린 연쇄살인마가 된 L과 "평생 빨갱이 취급" 받는 불구자가 된 아버지와 삼촌을 대신해 복수를 시작한 김찬. 이 둘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 악마는 특정의 한 개인이 아닌 "폭력의 역사" 그 자체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¹³⁾ 반성되지 못한 과거가

12) 이 부분은 시즌 2의 10화인 "악마의 탄생"과도 연결된다. 이 회차에서 따뜻한 품성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녔던 조정현 박사는 납치된 어린 지애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뱀파이어가 된 후 거침없는 폭력을 자행한다. L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조정현의 선택과 행위는 순환되는 폭력, 불의의 연쇄 고리에 주목하게 만들며 이전의 전사들도 떠올리게 한다.

13) 극 중 L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종종 인물들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며 인간의 본성에 극도로 냉소적 태도를 취한다.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역설적 강조이다. ("그 때 알았어. 세상에 착한 놈은 없다. 착한 척 하는 나쁜 놈만 있을 뿐이다...(중략)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누군가 너처럼 안 살아본 줄 알아요? 세상은 말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곳이 아니야. 그냥 아등바등 사는 거

다시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에도,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이 사건이 2010년대 현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일단락 될지 예견한다는 점, 그 결말의 무서운 현실성에 있다.

김준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기회도 난 당신들한테 기회 줘서. 당신들이 과거를 뉘우치는 것 같으면 용서하려고 했다고. 근데,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허학범은 여전히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유영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렸어. 그리고 당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날 고문했고.

부장검사 숲을 보게 하지 말고 나무를 보게 하라고요.

민태연 사건을 축소시키란 말입니까?

부장검사 축소가 아니라 키우자는 거지. 간첩사건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중략)... 과거 공안검사로 유명했고 현재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유영길의 딸이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정도면 그림 나오나?

(<뱀파이어 검사> 시즌 2 1화 폭력의 역사)

드라마 속 설정 전반이 우리의 실제와 매우 묘하게 겹쳐진다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암울한 진단과 전망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읽혀진다. 총을 맞고 병커로 급히 후송된 장군의 모습에서 시청자는 1979년 김재규가 저격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유영길, 허학범, 공두훈이 자행한 고문과 조작된 간첩 사건들, 1987년 공안 1과를 와해시켰다는 고문치사사건 등은 실제로 1971년 보안사가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야,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걸 뺏으면서 그렇게” - <뱀파이어 검사> 시즌 2 11화 뱀파이어의 귀환

서준식·서승 재일교포 형제 간첩단 사건이나 1981년 5공화국 독재 초기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1987년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목숨을 잃은 박종철 열사 등을 기억 속에서 소환하도록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는 유영길의 모습은 5공 시절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최병국이나 정형근과 같은 인물들을 손쉽게 지시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회차의 결말은 판타지라는 장르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실에 대한 지극히 꿰뚫힌 모방으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축소”를 운운하며 “그림”을 날조하려 드는 담당 부장 검사의 말이나 과거를 은닉한 채 맹목적 반공주의에 기대어 순고한 희생자로 나서는 국회의원 유영길의 기자회견 장면은 시청자에게 참담함마저 불러일으킨다. 뱀파이어인 민태연 검사의 활약으로 살인 사건의 범인은 색출하여 제거했으나 과거를 반성하며 체제 전반을 바로잡는 일까지는 개인의 초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불합리한 정치권력 하에서 또 다른 악마들의 탄생을 예견하는, 이 “폭력의 역사”를 향한 우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은 드라마 <뱀파이어 검사>의 저변을 관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2.2 사법기관의 무능과 부패

<귀신 보는 형사 처용>(이하 <처용>)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 ‘귀신을 보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형사 윤처용이 원혼으로 출몰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회차별로 각각의 강력 사건이 제시되면서도 각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각각

14) 강명주·이찬욱은 처용설화에서 처용은 역신에 의해 병든 사회를 관용과 해탈의 태도로 물리쳐 사회의 병폐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였는데, OCN 드라마에서의 처용은 소통과 믿음’을 통해 현대사회에 만연한 폐단을 해결할 메타포로 활용된다고 평가한다. (강명주·이찬욱, <귀신 보는 형사, 처용>에 再現된 處容說話의 變奏樣相 研究』, 『어문논집』 제60호, 중앙어문학회, 2014)

의 핵심 사건이 존재하는데 시즌 1에는 악귀 강한태가 벌이는 살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종교 집단 '한뜻 공동체'의 내부 비리(자금 유용, 납치, 폭행, 여성 신도 강간, 살해 등)를 고발하려던 강한태는 공동체 내부에서 살해당하고 임신한 아내마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경찰은 비리를 고발 받았음에도 사안을 불성실하게 수사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결국 내부 고발자로 몰려 살해된 그는 악귀가 되어서라도 아내와 아이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를 대신해 개인이 마련한 이 같은 자구책마저 '귀신 보는 형사' 윤처용의 퇴마술로 좌절된다. 가족의 비극을 끝내 막지 못했던 강한태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가 되어 처용의 파트너 경찰로 병의한 후, 당시 종교 재단 내부의 핵심 가해자와 방관자들, 그리고 복수를 방해하는 인물들(목격자인 여고생 한나영 등등)을 차례로 살해하는 악행을 일삼는다. 평범하며 선량했던 한 인간의 살인 행각의 배후에는 공권력의 오판과 무능, 부패 등이 존재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피소드 또한 실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과 묘한 일치 지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뱀파이어 검사>의 설정이 실제 사건들에 토대를 두었던 것처럼 시즌 1의 한뜻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등의 전모는 한국 사회의 사이비종교 집단들의 문제적 과거를 환기한다. 물론 특정의 사건과 드라마의 내용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1996년 '아가동산 사건'은 집단 내부의 비리는 물론, 미흡한 수사와 교주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라는 면에서 텔레비전 속 허구와 공통점을 읽어내기 충분하다.¹⁵⁾

<처용> 시즌 2의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 사법 체계의 불합리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이른바 '악마 변호사' 한규

혁은 든든한 배경을 지닌 범죄 가해자들을 옹호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다. 그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만 재판의 과정에서 보이는 검찰의 무능함은 한규혁의 달변 혹은 궤변과 교차, 비교되며 화면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사실 한규혁은 풀려난 가해자들을 다시 은밀히 납치해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한 후 사형을 집행한다. 그 역시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 했던 가해자가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의 사유로 감형되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던 아픈 과거사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상의 한규혁의 개인사는 앞서 본 <처용> 시즌 1의 경우보다 더욱 강렬한 기시감을 갖는다. 2008년 있었던 조두순 사건이 그것인데, 가해자는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 하여 장기까지 영구 손상시켰지만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것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 받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 후로도 아동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사실은 늘 세간의 비판거리가 되어 왔으며 특히 감형 과정에서의 "심신미약"의 사유는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 드라마는 사법기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보여줬던 사건들의 내용을 가져오되 그 결말을 다시 쓴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은 상처를 계기로 한규혁은 여동생의 이름을 딴 '사랑회'를 조직하여 남민수 검사와 손을 잡고 범죄자에 대한 사적 복수를 이어 나간다. 이는 결국 잘못된 사법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욕망, 부조리한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현직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노려 가해자를 얼마든지 무죄로 만들 수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검사가 불법적 단죄 방식을 선택한다는 설정은 결국 이 시대 사법 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대중적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랑회의 실체가 발각되던 위기의 순간에도 "법이 우리에게 해 준 게 뭐가 있어?"라며 달려드는 회원들의 거친 항의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사적 단죄의 현장을 저지하려 온 형사 윤처용

15) '아가동산 사건'은 1996년 12월 1일 사이비 종교 단체 "아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0여 명이 "아가동산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아가동산은 1987년과 1988년에 신도 2명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암매장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1997년 교주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되며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은 정의감에 넘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대면한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스러움은 좀처럼 수습되지 못한다.

물론 남민수 검사와 충돌하여 그에게 살해된 한규혁은 귀신이 되어서 야 사랑회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에 일조하기로 결심한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남민수의 지나친 독단(예비 범죄자를 찾아내 미리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한규혁의 이상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끝내 의심하게 된다. 심지어 남검사가 죽음을 앞두고 외치던 “나 하나 사라진다고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아? 썩어빠진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결국 또 다른 사랑회가 생겨날 테니까”라는 말은 악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가시지 않는 째름한 여운을 끝내 남겨둔다. 혼령으로 이 땅에 잠시 남았던 한규혁이 자신의 과오를 전적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정의가 쉽사리 구현되지 못하는 “썩어빠진 나라”에 의구심을 남겨둔 채 떠나간다는 것도 의미 있게 읽히는 대목이다.

처용 애초에 정의는 유치원 때 다 배웠어. 서로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나영 그런가?

처용 정의.. 뭐 별거 있나? 지은 죄만큼 벌 받게 하는 거. 돈, 권력 상관없이 법 집행하는 거.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랑회가 생긴 거고..."

한규혁 혼령 그러지 못하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윤희 사님이 말한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용> 시즌 2 10화 악마의 정의 Part 2)

이 외에도 각 회차별로 발생하는 개별 사건에서 원혼이나 악귀의 출현은 수사기관의 무능이나 권력 기관과의 유착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

다. 흔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귀신들, 즉 죽음의 세계로 완전히 귀의하지 못한 채 이승을 떠도는 영혼으로서의 귀신들은 삶의 영역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이나 풀지 못한 원한을 호소하고자 한다. 이들은 결국 현실이 은폐했던 욕망이나 금기를 폭로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와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현세의 논리를 전복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¹⁶⁾

<처용> 시즌 1의 8화에서는 성폭행 후 살해된 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죄 방면된 가해자들을 찾아 응징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딸의 원혼이 출몰한다. 전직 판사이자 유명 로펌의 대표였던 가해자의 아버지가 힘을 써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된 후, 피해자 양지수의 아버지 양만석은 백방으로 뛰며 끊임없이 재수사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좌절된 채 그는 건강마저 잃고 죽음을 목전에 둔다. 그리고 3년 후,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살해된 후에야 양지수의 사건은 비로소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양만석 누군 부모 잘 만나서 지은 죄도 세상이 알아서 다 덮어주는데 우리 지수는 우리 지수는 그 자식들 때문에 한창 꽃필 나이에 그렇게 끔찍하게...

양만석 ...그땐 그렇게 얘기 들어달란 때 들어주지도 않더니 왜요? 아, 잘난 집 자식들 죽으니까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저 이제 경찰들 말 다 안 믿어요. 당신들이 더 나빠. 철석 같이 믿는 사람 맘 이용해서 입막음이나 하고... 돌아가세요.

(<처용> 시즌 1 8화 어떤 정의)

정당한 수사를 요구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스스로 무참한 살인마가 된 후에야 딸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한 양지수는 살아서 그러했듯 혼령이 되어서도 가해자를 위해 할 만큼의 힘을 지니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아버지를 위해 불가사의한 흔적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형사 처용을 만나서야 세상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완전한 파멸을 저지하고자야 양지수는 저 세계로 떠나게 되었지만 사실상 양만석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살기 위해 죽어야/죽어야 한다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 이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회, 그러나 중국에는 그 극단적 선택이 패배될 수밖에 없는 미궁의 현실을 증언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3. 공권력의 불완전한 복원과 진실의 은폐

3.1. 초능력을 통한 질서의 일시적 회복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탁월한 능력이 부각되는 것은 수사물에서의 관례이다. 소위 '미드'의 대표적 수사물인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 시리즈 역시 전문적 지식과 단련된 육체를 지닌 수사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는 개인의 능력을 높이 사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에 있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과학수사대의 첨단 연구실, 전용 비행기까지 제공해 주는 FBI의 전폭적 지원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과학수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수사 능력은 실제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과장하는 데에서 나오며 이러한 상상은 시스템의 체계적 조력이라는 근간

위에 존재한다.¹⁷⁾ 미드에서 그들이 고민하는 외부의 문제란 부서의 예산 편성이 전년과 대비하여 얼마만큼 더 혹은 덜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지만, 한국 드라마에서의 걸림돌은 윗분들이 불편해 한다는 식의 상부 조직의 외압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물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스템은 조력자라기보다 차라리 방해자라고 봐야 옳다. tvN의 <시그널>(2016)에서 대도사건과 인주 여고생 사건의 배후에는 국회의원과 그를 돕는 경찰 내부의 세력이 존재하며 OCN의 <실종 느와르 M>(2015)에서도 부정한 건설사 사장과 결탁하여 살인을 주도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검찰국장이었다. <나쁜 녀석들>(2014)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를 주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부당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강력 범죄자로 꾸러진 불법적 수사팀이다. 경찰 내부의 합당한 조력마저 위법적인 경우로 제시하면서 법보다 주먹이 위에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 이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다.¹⁸⁾ 일례로 남성 주인공들은 종종 연쇄살인범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금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이는데 그럴 때 그들은 내부의 절차와 해결의 과정을 불신하며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탈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든다. 공권력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조력자들 역시 현 시스템의 운용 방식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주인공의 위법적 행위를 적극 혹은 소극적으로 옹호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드라마가 환상을 경유한 경우, 일반적 수사 체계를 넘어서는 한 개인

17) 이른바 'CSI 신드롬'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들 드라마 내 수사 과정과 사건 해결의 양상은 판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옳다. 그러나 이는 현 시점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판타지 수사 드라마의 상황과는 뚜렷이 변별된다.

18) 수사물은 아니지만 2016년 방영된 <38사기동대>에서 고액 탈세자들에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집행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다. 사기 전 과자의 사기 행위가 동원될 때 오히려 조세 질서를 다시금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¹⁹⁾ <뱀파이어 검사>의 민태연은 '검은 우비'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된 후 가공할 만한 신체적 능력과 더불어 사이코메트리의 능력²⁰⁾을 소유하게 된다. 드라마 <처용>의 형사 윤처용도 귀신을 보고 퇴마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물이다.²¹⁾ 피해자의 혈액을 마심으로써 당시의 상황과 고통을 생생히 대리 체험할 수 있는 민태연이나 슬픔과 고뇌에 찬 원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게 되는 윤처용에게 사건 해결의 의지는 사적 차원에서라도 다른 수사요원과 대비하여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민태연, 윤처용 모두 놀라운 검거 실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그 능력을 감춰야 한다는 이유로 팀원들에게 정보를 숨긴 채 독선적 행보를 이어 나간다.

주인공들은 수사의 정당한 절차와 무관하게 초자연적인 자신의 '감'에 의존하며 히어로물에 등장할 법한 빼어난 무술 실력을 거침없이 드러낸 후에 사건을 멋지고 깔끔하게 해결한다. 그러기에 종종 정직이나 면직 등의 위협에 노출되지만 제도권 안에 불안하게라도 그들이 안착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평범한 수사 팀원들의 후방 지원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거스르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들 앞에서 다른 형사, 검사의 오랜 경험에 바탕을 둔 노련한 수사 능력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거나 무용한 것이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합리적 절차를 버린 채 초능력에 기꺼이 기대어 수사를 진행하려고 든다.

19) 초능력을 지닌 수사관만이 맞설 수 있는 악의 실체는 그만큼 드라마 내에서 강력하게 부각된다. 이는 초능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 세계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20)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란 일반적으로 특정 소유물에 손을 대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적 행위를 가리킨다. <뱀파이어 검사>의 민태연은 죽은 자의 피를 맞봄으로써 살해 당시의 마지막 상황과 피의 동선을 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21) 처용의 과거는 드라마 내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악귀가 그를 향해 던지는 말("역시 대단한 눈을 가졌어. 불쌍한 네 예비처럼") 등을 통해 대략 추측해 볼 뿐이다. (<처용> 시즌 1 1화 귀신 보는 형사 Part 1)

<처용> 시즌 2에서도 처용의 능력을 알게 된 변국진 반장과 이종현 형사는 사건이 미궁에 빠질 때마다 처용에게 원혼이 보이지는 않는지 거듭 확인한다. 새로 투입된 분석관인 정하윤은 막강한 데이터 분석력을 갖춘 엘리트 경사로 설정되어 있지만 빙의 등의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며 영혼을 믿고 그 도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뱀파이어 검사> 시즌 2에서는 일본인 점성술사인 루나가 등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시한다. 그녀의 능력을 불신하던 유정인 검사를 비롯하여 특검팀 전원은 9화에 이르러 이지에 실종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타로카드 점과 다우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검찰청 내 사무실 안에 둘러앉아 형사, 검사, 법의관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을 이끌 점괘만을 기다리는 장면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환상을 경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인공을 비롯한 수사관들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범인으로 의심 되는 자, 법의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 위협하며 원하는 것들을 강제로 얻어낸다. 그 과정에서의 폭력은 대개의 경우, 정의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미화된다. 범망을 빠져나간 악인의 피를 탐하는 장철오(<뱀파이어 검사> 시즌 1)나 그러한 자들을 사적으로 응징하는 한규혁(<처용> 2)과 다른 것은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살인만큼은 저지르지 않는다는 최후의 윤리적 보루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하게 줄타기 하며 그들이 어렵사리 복원해 낸 이 사회의 질서는 지극히 불완전해 보인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이는 단적으로 증명된다. 시즌 1, 2 모두 살인의 누명을 썼던 민태연은 경찰 병력을 무력화 시킨 후 도망치고 윤처용 역시 자신을 지키는 경찰들을 유유히 제압하고 수사망을 빠져나가 독자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든다. 그들의 초능력은 초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성공함으로써 정당화 된다. 주인공의 행보가 보여주듯 법의 대리자들이

수호하려 드는 시스템은 이미 정상적 방식으로 작동되지 못하며 이성과 상식에 의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 불법 혹은 초법적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복원된 정의가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3.2. '괴담'의 소멸과 은폐된 악의 기원

<뱀파이어 검사>와 <처용>은 주요 가해자의 검거 그 후의 이야기를 좀처럼 다루지 않는다. 특히 거대 기업이나 권력형 비리가 촉발한 사건들, 사법 제도의 허점으로 피해 입은 자들의 보상 등 그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한다. <뱀파이어 검사> 시즌 1에서 등장하는 검사 유정인의 아버지 유원국은 조직 폭력배로 경찰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으며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유정인은 공사를 넘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인물이었지만 부정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런 유정인을 말없이 위로하는 듯한 민태연의 포즈와 끝내 사법처리 되지 않은 유원국의 모습, 이후 아버지의 과오에 속죄라도 하듯 수사에 열심인 유정인의 모습은 간접적으로나마 범죄의 은폐를 옹호하는 듯 보인다.

정인 나쁜 사람이 맞는데, 제가 잡아넣어야 할 사람들 중에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어떡해 든 혐의 입증해서 감옥에 쳐 넣어야 맞는 건데 그게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인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뱀파이어 검사> 시즌 1 9화 좋은 친구들)

더구나 인물 및 배경 등의 기본 설정은 유지되지만 에피소드가 연속

되기 보다는 매회 개별적으로 종결되는 시리즈(series) 드라마의 성격상, 후일담을 들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은 다음 회차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담담히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나타난 사건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에 지나지 않으며 친분 관계에 따라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매우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악령 혹은 뱀파이어의 존재와 얽힌 사건들은 비현실성으로 인해 실제의 세계에서 쉽사리 발화되지 못하며 공유해야 할 사회적 진실은 외면되거나 은폐되기 십상이다.

<뱀파이어 검사> 시즌 2의 3화 “어떤 정의”에서는 부실한 초동 수사와 부검의 조정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준성이라는 청년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옥살이를 하고 마침내 사형까지 당하게 됐지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수습과 반성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조정현 박사 개인의 죄의식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가 갈 곳 없는 이준성의 어린 조카 이지애를 입양하여 책임지려 드는 것,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처용> 시즌 2에서 밀실 살인범을 찾기 위해 혐의가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구 폭행하며 죄를 추궁하던 최형사는 유력한 용의자인 조남호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자 결국 그를 죽이고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7년 후 조남호의 원혼이 악귀로 부활하여 살인을 이어가면서 과거 최형사가 저지른 살인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그는 좀처럼 후회하지도 않는다. 물론 “진짜 괴물”을 만든 그는 어떠한 사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이야기 전개 안에서 사라질 뿐이다.

최형사 그래서 뭐, 그럼 그 괴물 새끼가 사람을 계속 죽이게 놔둬야 했던 말이야? 그 새끼가 범인이었고 지난 17년 동안 아무도 안 죽었어. 난 수많은 목숨을 살린 거야. 내 판단이 옳았던 거라고.

윤치용 아니요. 조남호를 진짜 괴물로 만든 건 당신입니다.
 (<처용> 시즌 2 8화 살인의 추억)

사건의 진실은 돌아온 조남호가 도주 중 사망하는 것으로 꾸며지며 은폐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원혼은 현실의 논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상을 경유해서 드러났던 문제들은 환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해 공격으로 발화되어 내부에서 의미화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그리하여 윤치용이 해결하는 사건들은 해당 범인을 잡고 원혼을 사라지게 만드는 개인적 차원으로 부터 쉽사리 나아가지 못한다. 그가 휘두르는 퇴마용 칼에 맞은 악령과 원혼은 산산이 부서지는 CG 효과에 힘입어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이 세계에 어떠한 자취도 남기지 못한다.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형체를 지니지 못한 자들의 말과 행위는 영상으로 구현된 이미지처럼 그렇게 쉽게 부서지고 흩어져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다.



< 사진 1 >



< 사진 2 >



< 사진 3 >

시즌 3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뱀파이어 검사>의 가장 핵심 사건인 ‘릴리트 프로젝트’ 또한 환상의 영역 안에 머물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군부의 부당한 폭력을 폭로하거나 악의 기원이 된 죄과가 정당하게 반성, 수습되는 결말로 나아가기란 어려우리라 본다. “영혼을 보는 형사 ‘처용’을 통해, 누구나 궁금해 하는 ‘괴담’의 실체를 벗겨냄으로써 미궁에 빠진 범죄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카타르시스를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기획의도의 표현처럼, 환상을 활용한 수사드라마는 도사에서 벌어지는 한낱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괴담”으로 전락하여 시청자의 일시적 카타르시스만 좇는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4. 맺음말

기이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낯선 징후들은 이 세계 안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목을 끌지만 현실의 논리로는 쉽게 해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체를 집요히 추적해 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목도하며 정의를 향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물이라는 장르의 강력 사건의 특정 가해자를 색출하고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시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하여 끔찍한 사건의 퍼즐은 공권력의 대리자들(검사 혹은 형사)의 신이한 능력(사이코메트리, 귀신을 보는 능력 등)에 힘입어 어렵사리 맞춰지지만, 결정적 진실의 조각은 적절히 정리되며 큰 그림은 은폐되는 수순을 밟아간다.

물론 특정 사건의 해결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개인의 원한을 해소하게 만든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 안에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목소리는 집단의 경험으로 복원되지 못하며 애도와 반성,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도화

선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수호하려는 주인공인 검사와 형사는 문제의 심연으로 들어갈 길을 교묘히 차단해 버린 채 자신에게 주어진 초월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해결사, 공권력의 유능한 대리자 역할에 스스로를 한정해 버린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그들 역시 이면으로는 제도를 불신하며 그것이 만들어낸 틀을 서슴없이 넘어선다는 모순에 있다.

마사 누스바움은 “공적 상상력으로서 문학적 상상력은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고, 입법자들이 법을 제정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²²⁾ 한국 수사 드라마에서의 환상은 일종의 공적 상상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제도와 정의의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공적 상상력으로서의 환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양진아·한정훈·박형진 극본, 김병수 연출, <백파이어 검사>, OCN, 총16회, 2011.10.02~2011.12.18.
 한정훈·이승훈·강은선 극본, 유선동 연출, <백파이어 검사 2>, 총11회, 2012.09.09~2012.11.18.
 홍승현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 보는 형사 처용>, OCN, 총10회, 2014.02.09~2014.04.06.
 홍승현·문기람·김용철 극본, 강철우 연출, <귀신 보는 형사 처용 2>, OCN, 총10회, 2015.08.23~2015.10.18.

2. 단행본

-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3.
 로즈마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케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3. 논문 및 평론

- 강명주·이찬욱, 「<귀신 보는 형사, 처용>에 再現된 處容說話의 變奏樣相 研究」, 『어문논집』 제60호, 중앙어문학회, 2014.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정여울, 「<CSI>엔 없지만 <별순검>엔 있는 것」, 『플랫폼』 8호, 2008.

22)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3, 28면.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Fantasy' on crime scene investigation
drama of OCN

- With a focus on <Cheo yong the ghost seeing detective>
and <Vampire prosecutor> -

Baek Soyoun

The signs of fantasy that have appeared in the fantasy investigation drama since 2010s have strong presence, but cannot be easily interpreted by the logic of the reality. In the persistent process to chase the truth, we come to face the ugly naked face of this society, and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nd have doubt about justice. Ye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an investigation drama, it focuses on securing temporary safety of a community by tracking down and eliminating a particular assailant of a capital case. As the result, terrible cases are solved with difficulty by the supernatural a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but they move on to the next step that crucial truth is evasively arranged or concealed. Of course, it's meaningful enough that the solution of a certain case can harbor a person's grudge who hasn't been protected socially. However, the voice of those who cannot help becoming monsters in the present system cannot be restored as a collective experience, and fail to become the fuse that can bring about sympathy, self-reflection and fundamental changes of the society. Consequently, a prosecutor and a police investigator, the heroes who try to defend the system, have the limitation that they cleverly block the path to the depth of a problem and restrict themselves to the role of trouble shooters and competent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making full use of transcendental power given to themselves.

Key words : <Cheo yong the ghost seeing detective>, crime scene investigation drama, fantasy, fantasy drama, OCN, television drama, <Vampire prosecutor>

접수일: 2017년 2월 10일

심사기간: 2017년 2월 14일~2월 28일

게재결정: 2017년 3월 15일